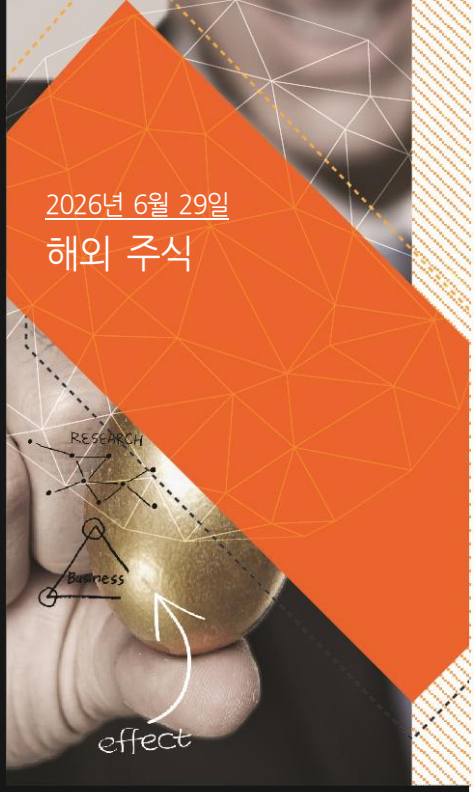


2026년 6월 29일

해외 주식

미국 주식

신고가를 기록 중인 미국 바이오

유가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하락 폭은 크지 않습니다. 케빈 워시 의장이 FOMC에서 매파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컨센서스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시중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이유는 양호한 경기 덕분이라고 판단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장기금리 상승은 양호한 경기 덕분'). S&P 500, 나스닥 지수와 빅테크의 움직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미국 바이오 지수도 높은 금리를 주가 조정의 빌미로 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메모리에 집중된 AI수혜가 미국에서는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장비 신고가 등). 역사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바이오 지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2분기부터 엇갈렸습니다. 하반기부터 괴리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해외주식 한상희, CFA
sanghi.han@hanwha.com
3772-7695

전쟁 → 유가 → 물가 → 금리 논리를 깨는 버티는 10년물

120달러에 육박했던 WTI가 70달러 초반까지 하락했다. 완전한 종전 내지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아직 달성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원유 공급 초과에 대한 우려가 유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유가가 현재 수준과 유사한 70달러를 유지한다면,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의 정점은 5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1, L).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우려가 약해진다는 관점이라면, 높게 유지됐던 금리는 떨어져야 한다. 전쟁 이후 WTI와 10년물의 상관관계가 높았는데, 5월말 이후 괴리가 발생했다. 유가가 36% 폭락했지만, 10년물 국채 금리는 5% 떨어지는데 그쳤다. 시장 참여자들의 다수는 6월 FOMC의 결과가 기준금리 인상을 내포하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하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림 1,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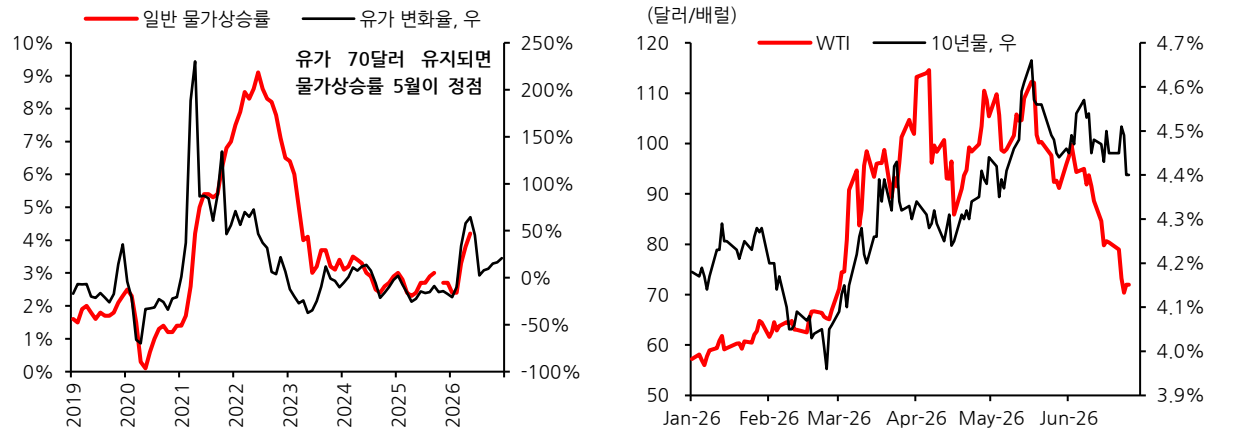
점도표를 찍지 않은 연준 의장 vs. 점도표로 매파적이라는 언론

케빈 워시는 6월 FOMC에서 SEP 및 기타 포워드 가이던스 등의 전체적인 소통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새로 취임한 의장이 앞으로 보지 않겠다는 지표를 근거로 매파적인 회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물가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연준 자산 증가에 부정적이라고 알려진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면서도 급격히 짧아진 성명서에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겠다는 문장을 넣어둔 것은 (The Committee reaffirmed its policy of maintaining ample reserves in the banking system), 말과 행동이 달랐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두 가지가 상충되면 언제나 말보다는 행동에 주목해야 한다.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미국 바이오: 한국과의 격차 줄어들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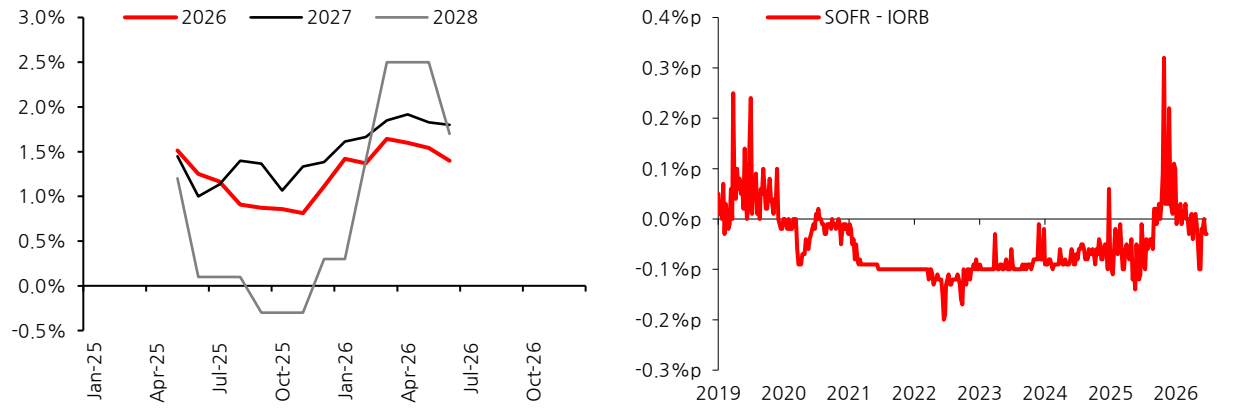
우리는 금리가 충분히 내려가지 않는 이유를 물가보다는 경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단기 자금 대출도 여전히 쉽다 (SOFR – IORB, 그림 2). 미국 바이오가 6월 중순 이후 시장 지수의 움직임과 다르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도 강력한 경제와 유동성의 증거다 (그림 3). 미국과 한국 바이오는 역사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했다. 금리에 대한 해석이 바뀌면, 괴리는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그림 4).

[그림1]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10 년물 금리는 정체되고 있는데…



자료: Factse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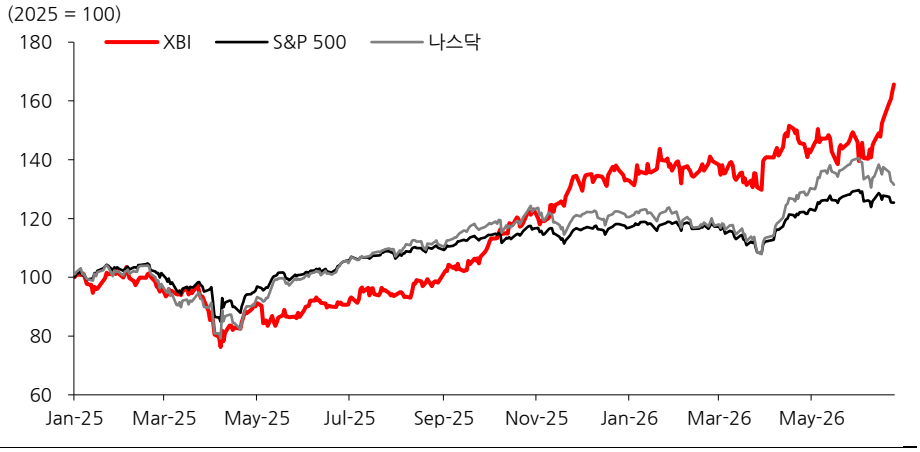
[그림2] … 미국의 강력한 경기와 유동성 때문이라고 판단: 8 월 엔비디아 분기 수치 발표까지는 실적 장세 유지



자료: Factse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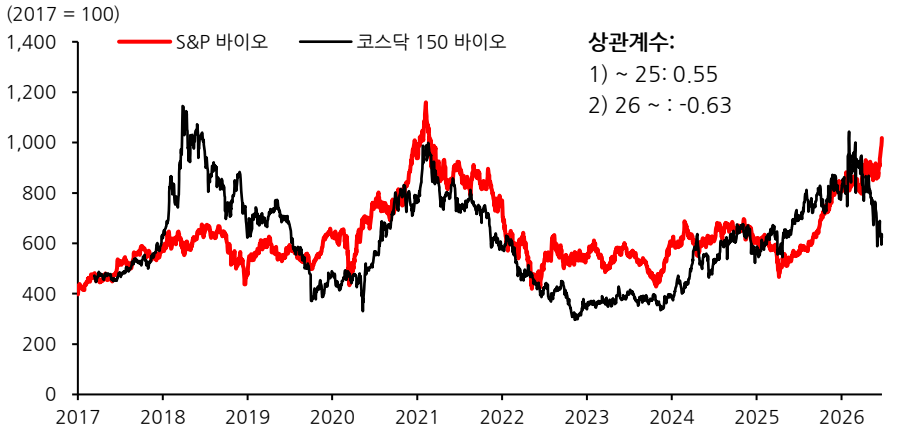
[그림3] XBI 와 지수

6월 주가 변동성 확대에도 XBI 지속 상승 중



메모리 반도체로의 쏠림이 극심해지면서, 미국과 한국의 바이오 지수 방향성 괴리 심화

[그림4] 바이오 지수 비교: 미국 vs. 한국



자료: Factse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6 년 6 월 29 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상희)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 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 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 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6 년 3 월 31 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0.7%	9.3%	0.0%	100.0%